

푸른길, 시민참여 생명공동체의 길

— 광주 폐선부지 푸른길조성사례 —



시경희(광주 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사무국장)



1. 들어가며

■ 도시의 현실

- 행정 중심의 도시계획결정
- 자동차중심의 도시교통문화
- 도심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녹지공간 부족
- 도시공간활용 구상과정에서 객체가 된 시민들





2. 철도와 도시

- 1899년 노량진과 제물포사이를 가로지르는 경인철도 개설(국내 첫 철도)
- 기차는 근대문명을 전해주는 통로, 근대성과 진보성의 상징
- 철길을 따라 문물이 이동, 철도역을 중심으로 근대도시의 형성

■ 광주와 철도

- 1922년 7월 광주역~송정리간 철도가 개통
- 전통도시인 나주는 쇠퇴하고 광주를 중심으로 도시형성
- 1922년 광주~담양간 철도 개통(1944년 태평양전쟁의 금속회수령에 의해 철길이 사라짐)
- 1930년 광주~여수간 철길이 개통(현 푸른길공원조성구간)

■ 광려선(광주~여수) 이용형태

- 광주~화순~보성~여수를 연결하는 철길을 통해, 통학, 통근하는 학생,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
- 보성, 여수의 해산물의 남광주시장 유통통로
- 농어촌 주민들의 도시이주의 통로







3. 도심철도 폐선의 과정

3-1. 주민과 광주시, 도심철도 이설을 주장하다.

- 광주역~효천역까지의 10.8Km구간에 29개소의 건널목으로 인해 교통체증
- 소음과 매연, 진동 등 생활환경의 피해
- 철도로 인한 인명 사고 증가
- 철도 양쪽 10m가 시설녹지로 묶여 재산권행사의 제한 및 주택의 증개축 불가
- 철도 내부로의 택지개발에서 철도 외부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짐.
- 도시의 확장에 따라 도시개발의 걸림돌로 인식됨.
- 철도주변 주민들은 1988년『철도이설추진위』결성, 철도이설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 전개



3-2. 도심철도 이설 과정

- 1974년부터 광주시 행정과 시민들 도심철도 이설을 요구
- 1976년 철도이설관계관 회의개최, 광주역을 송정리역으로 통합제안, 소요예산은 폐선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
- 1983년 도시기본계획변경, 광주시 교통부장관에게 철도이설 건의
- 1988년 도심철도 이설 확정. 노선, 예산등의 문제로 이설시기가 미뤄짐
- 1995년 도심철도 이설사업 착공(효천역~서광주역~송정역(11km))
- 광주도심철도이설 사업으로 도심내 10.8km의 폐선부지 발생(경전선의 일부)
- 이설비용 1100억원 광주시에서 마련. 철도청으로 부터 5만여평의 폐선부지 광주시로 무상 이관



4.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갈등과 대립

4.1 폐선부지의 녹도요구

- 폐선이 확정된 89년 이후, 예산의 문제로 이설사업이 지연
- 98년 광주시의 경전철활용방안에 대해 철도주변주민 300여명 녹도조성을 요구하는 청원서 제출
- 98년 환경운동연합, 광주시의회에서 폐선부지의 친환경적인 활용방안 및 공공활용을 주장하면서 폐선부지활용에 대한 지역담론 시작

4.2 광주시, 경전철활용방안을 모색

- 94년 광주시, 폐선부지 활용방안 용역 결과, 이설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폐선부지의 일부 매각, 도로, 주차장 활용
- 이설사업이 본격화되지 않자, 용역결과는 용역의 결과로만 존재,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활동이 진행되지 않음.
- 95년 이후 이설사업이 본격화되자, 98년 도시철도계획(지하철)과 연계하여 경전철부지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



4-3. 폐선부지의 푸른길조성을 위한 민간운동

- 지역주민들과 민간단체, 『도심철도폐선부지 푸른길시민회』1999년 결성
- 폐선부지 활용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(매월 1회이상, 총 30여 차례의 워크숍, 토론회, 포럼 등 개최)
- 지역 주민간담회를 통해,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 수렴 및 푸른길에 대한 합의
- 광주시의 푸른길조성결정을 요구하는 집회, 시장면담 등 진행
- 지역주민,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행사 및 철도피해 및 희생을 위로하는 위령제 진행
- 폐선부지의 경전철 활용을 반대하는 빌더링, 자전거대행진 등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활동



4-4. 광주시, 기자회견을 통해 폐선부지 활용계획 발표

- 2000년 8월 폐선이 된 당시에도 광주시 폐선부지의 활용계획을 결정하지 못함.
- 그해 12월 시장기자회견을 통해 폐선부지의 녹도조성방침을 발표
-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만큼 지역내 현안문제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었음.







5. 광주폐선부지 푸른길공원

5-1. 개요

- 구간: 광주역~남광주역~동성중간 7.9km(폭 8~15m) 105,613m²
(폐선부지 10.8km 중 동성중~효천역간 2.9km 제외 : 향후 경전철 부지로 활용 계획)
- 사업비 : 200여억원
- 사업기간 : 2002년 ~2008년

5-2. 조성원칙

0 녹지공간조성의 원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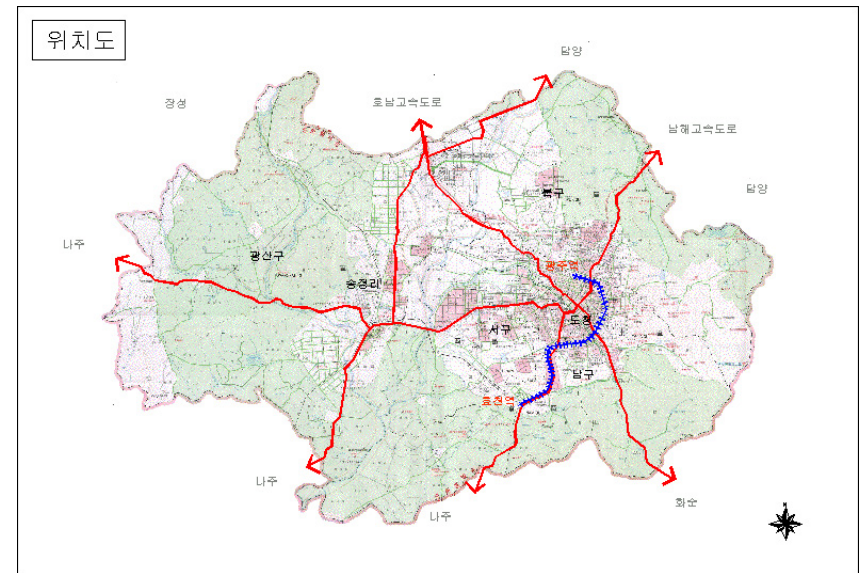
-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있는 녹지공간
- 시민광장, 쌈지공원 조성

0 폭넓은 주민참여의 원칙

- 기본구상, 계획, 설계, 건설, 사후관리 등의 과정에 주민, 일반시민, 전문가, 행정, 의회 등의 다양한 집단의 참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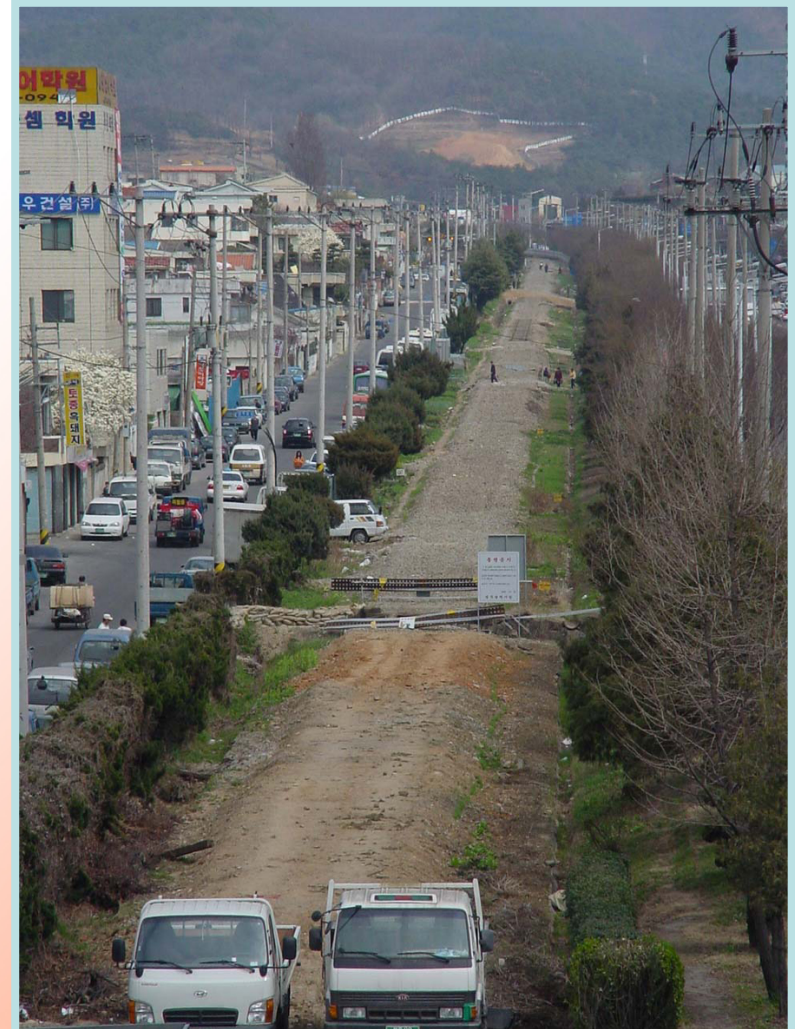
0 주변지역의 도시개발 견인기능

- 재개발지구,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이 폐선부지 주변에 위치함
- 폐선부지와 연계하여 주변지역 발전에 대한 연구 및 실행





광주 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



도심철도 폐선부지 활용계획

핵(核)과 매듭에 의한 성장하는 녹지축 - “빛과 생명의 푸른길”





6. 푸른길, 시민이 함께 만든다.

6.1 푸른길운동본부의 결성

- 시민참여 도시계획의 새로운 모델인 푸른길의 의미를 높임
- 폐선부지 푸른길결정이후 시민참여의 푸른길을 만들기 위해 지역주민, 민간단체,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결성
- 경전철반대운동을 전개한 도심철도이설부지 푸른길가꾸기시민회의의 맥을 이음
- 행정과의 대립이 아닌 파트너쉽을 전제로 푸른길조성활동을 펼치기 위함.

■ 구성

- 민간단체 : 환경단체, 직능단체, 사회단체 등 30여개단체 참여
- 지역주민 : 폐선부지 인근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단체 참여
- 전문가 : 도시계획, 조경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

■ 결성일 : 2002년 3월 29일





6-2. 시행정과 파트너쉽구축을 통한 거버넌스구축

- 푸른길공원조성의 전반적인 자문을 위한 『푸른길공원조성자문위원회』구성, 민간단체,전문가가 상시적으로 협의
- 푸른길공원조성의 시민참여의 구체적인 방안 협의
- 운동본부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시민참여의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, 운영
- 시민참여구간 설정과 시민참여를 위한 기반조성







6-3. 시민의 이름으로 숲이 조성되다.

■ 조성하는 과정에 시민참여

- 푸른길100만그루헌수운동을 통해 개인 1만원부터 시민, 단체, 기업에서 푸른길 조성에 참여.
- 가족의 나무, 기업과 단체의 숲조성
- 녹색기부문화 활성화
- 백만개의 이야기가 있는 푸른길(참여에 따른 다양한 참여동기, 참여이후의 관리 이야기 진행)

■ 시민이 관리하는 푸른길공원

- 조성이후, 행정과 함께 주민이 푸른길공원관리
- 도시숲 푸른길은 사업조성으로 완성이 아닌, 지속적인 시민참여관리를 통해 숲이 완성되어감.
- 이용이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주민들의 자율적인 관리프로그램 운영



함께 만드는 도시숲길 푸른길

Ⅲ 시민참여 구간

원주역 - 조선대입

- 위치 및 규모 : 미정
- 참여시기 : 2005년 겨울부터

남광주역 - 백운광장

- 위치 : 미래아동병원 건너편
- 규모 : 길이 80m×폭 3~6m
- 참여 종류 : 나무, 벤치, 시상물, 기념공판, 참여의 벽
- 참여시기 : 2005년 2월부터

백운광장 - 동성중

- 위치 : 진흥동 청신교동~죽마로~원신아파트
- 규모 : 길이 880m×폭 18~20m
- 참여의 종류 : 나무, 벤치, 기념 숲, 바둑타일 및 바둑문양 만들기
- 참여시기 2005년 6월부터











7. 푸른길운동을 통한 변화

- 도시공동체, 마을공동체형성
- 생태도시- 녹지공간확보로 도시의 환경성회복
- 문화공간으로 재탄생
- 안전한 통학로 및 산책로 조성
- 주민자치의식 형성





8. 마치며

- 푸른길가꾸기운동은 진행형...
- 교차로 등 푸른길단절공간을 녹지로 연결
- 보행, 자전거이용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
- 폐선부지 주변 녹지공간 확대
- 민간참여의 체계적인 녹지관리 시스템 구축
- 푸른길공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, 도시속 곳곳에 새로운 푸른길을 만들고 연결
해나가는 녹지확대운동으로 승화
- 시민이 행정과 파트너쉽을 넘어, 거버넌스체계 구축
-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